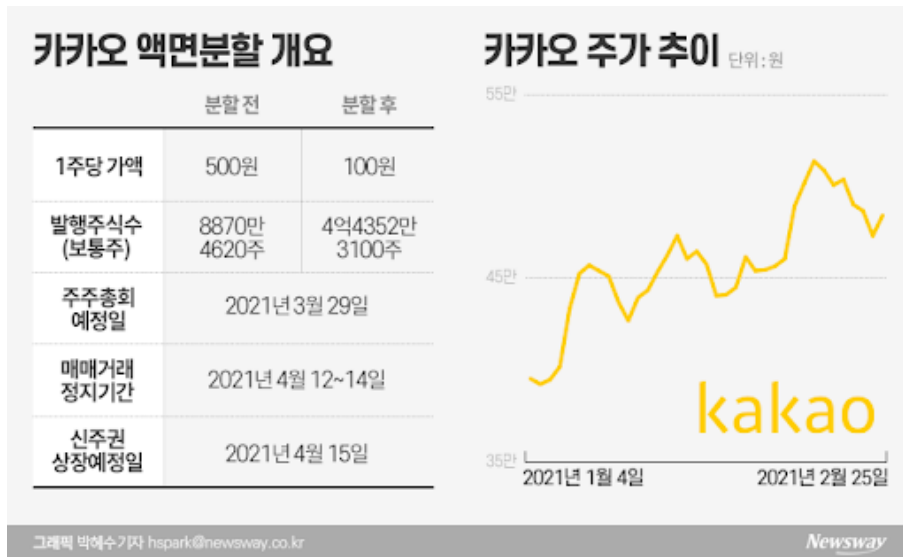


카카오 액면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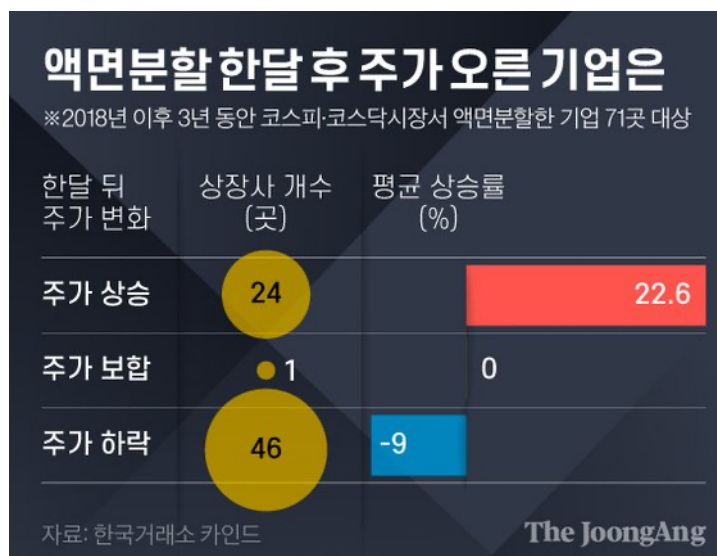
#현재상황



카카오가 **5대 1 액면분할**을 결정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액면가는 **5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됩니다. **카카오** 발행주식 수는 8870만 4620주에서 4억 4352만 3100주로 증가합니다. **분할 상장 예정일은 4월 15일**입니다. 이에 따라 **12~14일은 거래가 정지**됩니다.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이번 액면분할 결정은 "**소액주주 접근성을 높여 주식 가치를 끌어 올리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액면분할을 했던 기업들의 주가 성적표가 **카카오**의 향후 주가 향방에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액면분할이란?



'액면분할(Stock Split)'이란 **주식 액면가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액면가'는 회사가 처음 설립된 날 주식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의 액면가 3만 원인 주식 1주를 3조각으로 나눠 1만 원짜리 주식 3주로 늘리는 것입니다. **주식 1주가 너무 비싸 매매가 어려워지거나 거래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를 나눠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액면분할은 기업의 **재무구조에는 영향이 없지만, 수급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액면분할하면 유통주식 수가 늘면서 **거래가 활성화 되고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선 주식이 훨씬 싸게 느껴지고 투자하기에 부담 없는 금액이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액면분할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액면분할 후 득이 된 주식은?



한국석유도 지난 25일 유통주식 수 확대를 위해 1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다고 발표했는데 **다음 날 상한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석유**는 26일 전장 대비 29.90% 급등한 19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식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향후 주가 전망을 놓고선 긍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지난해 하반기 주식분할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액면분할은 고가주들은 유동성이 늘면서 투자자 접근성이 커진다는 점과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장점 요인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액면분할 후 독이 된 주식은?



그러나 액면분할이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앞서 액면분할을 했던 기업들이 초반에는 주가가 오히려 빠지거나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5월 4일 1주당 250만 원이던 주식을 50대 1의 액면분할을 단행하면서 상당 기간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65만원이던 주가가 5만 3천 원으로 낮아지면서 거래가 급증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한동안 맥을 못춘 것**입니다.

게다가 액면분할 직후 5만 3천원에서 5만 1100원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29일 8만 16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액면분할 당시보다는 상승했지만, **액면분할 효과라기보다는 지난해 동학 개미의 매수 열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이버도 같은 해 10월 2일 약 70만 원에 이르는 주식을 5대 1로 분할했으나 **3개월 이후 주가가 8%가량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관련 주가가 수혜를 입으면서 37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5년 10대 1로 액면분할했는데 (29일) **현재 주가(26만 2600원)가 분할 직후 주가(37만 6500원)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 **카카오**도 액면분할을 처음 발표한 지난달 25일 시간 외 거래에서는 주가가 4.85% 급등한 50만 8천원을 기록했지만, **그 다음날 주가는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다만 26일 하루 거래량은 전장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는 이후 8거래일 연속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됐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했습니다.

액면분할 이후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액면분할이 거래를 늘리는 효과를 내지만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따라 주가가 형성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액면분할이 기업가치와 전혀 무관하지만 액면 가격이 5천 원이 안될 경우에는 기업 펀더멘탈이 안 좋다는 신호로 인식할 수 있어 주가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